



50회 맞은 볼로냐아동도서전 창비 '눈', 볼로냐라가치상 대상 수상

볼로냐아동도서전시회가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됐다. 2만㎡규모에 66개국 1200개사가 참가한 2013볼로냐아동도서전에는 다양한 아동도서가 전시됐다. 특히 올해는 도서전 개최 50주년을 맞아 BOP상(올해 최고의 아동출판사 상)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올해로 50회째를 맞은 볼로냐아동도서전은 매년 봄, 유서 깊은 이탈리아 중세 대학도시인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도서 저작권 거래 전문 도서전이다. 매년 70여개 나라에서 5000여 명의 출판인, 일러스트레이터, 아동 및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아동도서에 대한 저작권 거래는 물론, 관련 심포지엄 및 회의를 통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출판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한국 아동도서와 일러스트레이션을 전 세계 아동출판 전문가들에게 선보임으로써 한국이 보유한 능력과 잠재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국 아동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됐다. 올해 주빈국은 스웨덴으로 '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

(Children's Right to Culture)'를 주제로 전시했다. 프로그램을 주최한 스웨덴예술원은 "아이들도 문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유년시절을 인생을 위한 준비단계로만 여긴다. 그렇다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 삶의 1/4에 가까운 시간을 그냥 지나치게 해도 될까? 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이들 자신을 표현하는 것, 다양한 표현수단을 가지는 것, 듣고 전달받는 것, 예술 문화 그리고 정보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주빈국 스웨덴은 아이들을 인간으로, 또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하고, 아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주제로 전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50주년 기념 BOP상 제정

올해는 도서전 개최 5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BOP상(올해 최고의 아동출판사 상)을 제정했다. BOP상은 2012년 도서 편집 혁신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한 세계 각국의 출판사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대륙별(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1개사씩 총 6개사가 선정된다. 올해 대륙별 수상자를 살펴보면 유럽은 포르투갈의 Planeta Tangerina, 아시아는 인도의 Tara Books, 아프리카는 르완다의 Bakame Editions, 북미는 미국의 Chronicle Books, 중남미는 브라질의 Cosac Naify, 오세아니아는 뉴질랜드의 Gecko Press 등이다.

창비의 '눈', 볼로냐라가치상 픽션부문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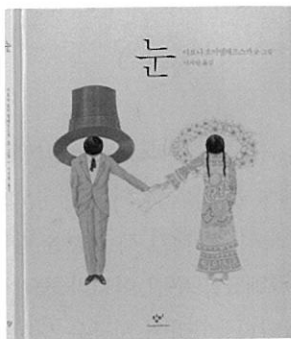
'볼로냐라가치상'은 매년 볼로냐아동도서전 주최 측이 세계에서 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각국의 권위 있는 국제 심사위원단이 작품성과 예술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가장 탁월한 완성도를 보인 그림책을 선정해 수상하는 시상제도로, 픽션(판타지 소설이나 그림 동화)·논픽션(과학, 역사, 미술, 음악, 자서전 및 최근 이슈)·뉴호라이즌(아랍국,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 출판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산물)·오페라 프리마(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처음 출판된 작품) 등 4개 부문에서 각각 대상 작품 1권과 우수작품 2~3권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도서전에서는 창비의 '눈' (글·그림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이 '볼로냐라가치상' 픽션 부문 대상을, 썸북스의 '가시산' (글·그림 박선미)이 오페라 프리마 부문 우수작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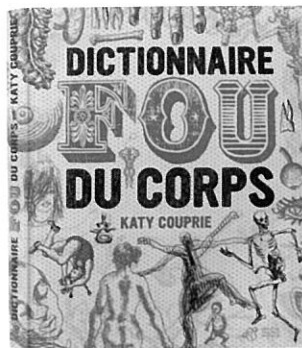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전 세계의 그림책 작가 3417명이 지원해 최종 77명을 선정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이빨사냥꾼'의 윤주희, 'I and G'의 이미영, '집으로 가는 길'의 이지연, '꿈꾸는 물고기'의 정하연, '스팔릿 아주머니'의 조원희, '유월. 모란'의 조영경 등 한국의 작가 6명이 선정됐다.

출협 한국문학번역원, 전시부스 마련해 한국 그림책 홍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는 304㎡ 규모로 교원, 문학동네, 비룡소, 시공주니어 등 국내 31개 출판사 및 관련 기관과 함께 800여 종의 아동도서를 전시했으며, 저작권 수출을 위한 홍보 및 상담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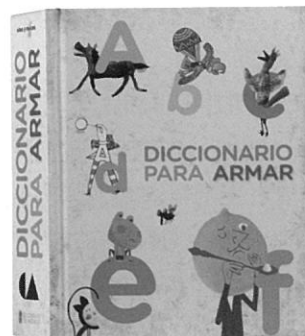
또한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성곤)은 국제관에 독립적인 전시 부스를 마련해 '코리안 스타일 : 한국 그림책에 담긴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을 주제로 한국의 대표 그림책을 전시하고, 삽화가 유주연, 박연철 작가가 참여해 한국의 독특한 삽화 기법을 알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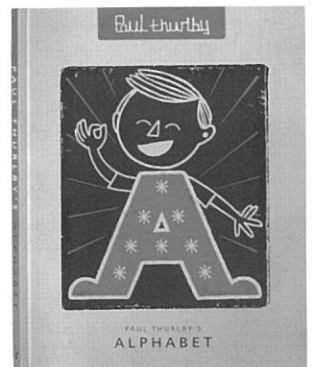
픽션 부문 대상
국가 및 출판사 한국 / 창비
책 제목 눈
글·그림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논픽션 부문 대상
국가 및 출판사 프랑스
Editions Thierry Magnier
책 제목 Dictionnaire fou du corps
글·그림 Katy Couprie



뉴호라이즌 부문 대상
국가 및 출판사 멕시코 / Colegio de Mexico, Conaculta, Alas y Raices
책 제목 Diccionario para armar
글·그림 Carmen Lenero et al. Alejandro Magallanes et al.



오페라 프리마 부문 대상
국가 및 출판사 영국 / Templar Publishing
책 제목 Paul Thurlby's Alphabet
글·그림 Paul Thurlby